

# “거리두기 끝” 새 차 사고 맛집 갔다

### 1~7월 광주·전남 카드 사용액

올해 1~7월 광주·전남 지역민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늘어났는데, 새 차 구매와 숙박·음식점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온라인 소비와 가전·가구 소비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 가맹점 신용카드 사용액은 광주 6조 3120억원·전남 5조 5982억원 등 11조 91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 5321억원)보다 13.1%(1조 3781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광주·전남 카드 소비는 1~7월 기준 2020년 10조 4489억원, 2021년 10조 5321억원, 올해 11조 9102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광주 카드 사용액은 2020년 5조 6378억원, 2021년 5조 5758억원, 올해 6조 3120억원 등으로 1년 새 13.2% 증가했다.

### 전년비 13.1% 늘어 11조9102억...자동차 부문 1조2천억

전남 사용액은 4조 8111억원→4조 9563억원→5조 5982억원 등으로 늘며 1년 동안 13.0%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주·전남에서는 자동차 카드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광주지역 자동차 부문 소비액은 9722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7754억원이 국산 자동차 구매에 사용됐다. 전남 자동차 부문 소비액은 2093억원이었는데, 자동차 부품·정비(1977억원) 사용액이 대부분 차지했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면서 연료 카드 소비액도 크게 늘었다.

연료 부문 소비액은 광주는 31.0%(7419억원→9722억원), 전남은 28.7%(7758억원→9987억원) 급증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외식과 여행 관련 소비

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숙박·음식 부문 사용액은 광주 8027억원·전남 1조 904억원 등 1조 89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6039억원)보다 18.0%(2892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음식점 카드 소비는 광주가 17.6%(6676억원→7853억원), 전남은 18.0%(8596억원→1조 142억원) 늘어났다.

오락·문화 부문 소비는 광주 2022억원·전남 30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2.7%·20.7% 증가했다. 관광지가 많은 전남은 여행·교통 소비액 증가율이 21.6%(74억원→90억원)에 달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 들어 편의점 카드 사용액은 광주 1333억

원·전남 156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6.0%·16.7% 뛰었다.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백화점(광주 9.9%·전남 11.7%), 대형마트·유통 전문점(광주 5.5%·전남 2.8%), 슈퍼마켓(광주 0.8%·전남 5.1%) 등 순으로 높았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음에도 지역민들의 경계는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화장품 소비는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광주·전남 1~7월 기준 화장품 카드 사용액은 645억원(2020년)→581억원(2021년)→570억원(올해) 등으로 줄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서 가구·가전에 들이는 돈은 광주·전남에서 10% 넘게 줄었다.

올해 가구·가전 카드 사용액은 광주 1641억원·전남 1207억원 등 2848억원으로, 전년(3197억원)보다 10.9%(-379억원)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부문 카드 지출도 407억원(2020년)→132억원(2021년)→125억원(올해) 등으로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29.17(-7.70)
↓ 코스닥	694.13(-3.24)
↑ 금리(국고채 3년)	4.158(+0.063)
↑ 환율(USD)	1423.80(+6.40)

## 야외스포츠도 늘었다

### 구기 용품 매출 183.5% 경증

실외 체육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지난해 광주 대형마트에서의 구기(球技) 용품 매출이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지역 이마트 3곳에 따르면 이들 점포의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구기 스포츠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5% 증가했다.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 날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축구나 야구 종목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이마트 측은 풀이했다.

종류별로 보면 같은 기간 야구용품 매출은 310.5%, 축구용품은 157.1%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60.8% 뛰고, 목욕용품·보습 제품 매출도 18.2%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美 금리 또 0.75%P 인상...한국 경제 '먹구름'

###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하방 압력 확대...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에 수출 감소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짙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 연준은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종전 3.00~3.25%에서 3.75~4.00%로 0.7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6월에 자이언트스텝을 밟은 것을 시작으로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긴축은 달러 강세를 부추겨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말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달러당 1400원까지 오른 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미국 패파(통화 긴축 선호) 기조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6.4원 오른 달러당 1423.8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9월 수입 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전월 대비 3.3% 올랐다. 그러나 수입할 때 계약했던 결제 통화 기준으로 하면 수입 물가는 1.4% 하락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6개월째 5%를 넘는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 물가 상승세는 전체 물가가 내려오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

미국의 긴축으로부터 비롯된 달러 강세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高)현상'을 심화시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미국 경기 둔화 압력이 가중된다는 점은 한국 수출에 악재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7% 감소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줄었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 6월에 한 자릿수로 내려온 데 이어 아예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전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7.7% 급감하며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합뉴스

#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한 85년

## 역사서 발간

광주상공회의소의 85년의 역사를 담은 '광주상공회의소 85년사'가 나왔다.

광주상의는 85년의 역사와 활동상을 담은 '광주상공회의소 85년사'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창립 8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것으로, 1936년부터 2021년까지 85년 간 광주상의의 성장과 활동, 성취의 발자취를 엮은 역사의 기록물이라고 광주상의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광주상의 85년사는 '광주상공회의소 40년사'(1976년 발간)와 '사진으로 보는 광주상의 50년'(1986년 발간) 이후 35년 만에 발간되는 역사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총 773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책자는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의 발간사를 시작으로 역대 회장, 제24대 의원 현황과 회관 변천사, 연혁에 대한 소개로 구성됐다.

역사는 제1편 '광주상공회의소 태동과 종합경제단체로서 발돋움'이라는 부제의 광주상의 40년사 요약과 함께 총 6개의 편으로 구성됐다. 각 편에는 시대적 배경과 경제 이슈, 당대 회장 및 의원의 구성과 활동, 상의 역점사업 및 추진성과 등 지역발전과 상공업 진흥을 위한 공간을 노력을 담았다.

시대적 배경과 경제 이슈 등 광주지역 경제사 부분의 집필은 박준수 전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과 강덕균 전 전남일보 국장이 맡았다.

이밖에 200페이지 분량의 '사진으로 보는 광주상의' 화보를 통해 광주시 과거 모습 및 당시 시대적 이슈, 1936년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당대 회장 및 의원의 활동과 상의 추진사업 등 광주상의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았다.

광주상의가 지역경제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역사서는 지역경제의 과거와 현황을 확인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창선 회장은 "광주상의는 85년간 많은 국가적 고비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발전 역사와 함께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지역 대표 경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 85년사'는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 전국상공회의소,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gjcci.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광주 쌀 6368t 정부 매입 추진

올해 광주에서 생산된 쌀 6368t에 대한 정부 매입이 추진된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3일 공공비축미곡 건조비에 대한 첫 수매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광주에서 생산된 6368t 상당 쌀을 사들일 방침이다.

공공비축미곡 3464t과 시장격리곡 2904t으로 나뉜다. 매일 품종은 새정무와 신돈진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벼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쌀값 회복을 위해 공공비축 물량을 전년보다 10만t 늘린 45만t 수매하기로 했다.

시장격리곡은 2021년산 10만과 2022년산 35만 등 45만을 사들인다.

이날 고성신 광주본부장과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광산구 동곡농협을 찾아 공공비축미 첫 수매 협정을 살폈다.

고 본부장은 "농가 벼를 최대한 매입해 농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발생하는 수매협정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달라" 당부하며 "쌀값 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별이가 좋아야 결혼·출산도 하죠

### 100명 당 결혼 확률 정규직·대기업 5.06명...비정규직·중기 3.06명

정규직과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출산 확률이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종사자 특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차이가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지역, 산업 분야 등 개인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5~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한해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으로 결혼 확률이 비정규직의 1.65배였다.

기업 규모도 비교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한해 100명 중 4.23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으로 혼인 확률이 중소기업의 1.43배로 나타났다.

한해 출산 확률 역시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1.37배로 모두 동일한 차이가 확인됐다. 다만 첫째를 출산한 이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 확률을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은 혼인 외 출산이 흔한 외국과 달리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과 출산의 관련성이 매우 커

결혼율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은 OECD 평균이 59.3%인 반면 한국은 97.8%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첫 출산 연령도 OECD 평균(29.2세)을 웃도는 32.3세였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려면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 구조의 핵심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신용보증센터, 23일 중기 매출채권 상담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광주신용보증센터가 오는 23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관리 상담을 벌인다.

센터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적의 매출채권 관리방안 워크숍'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부실 외상 대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센터는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관리능력을 높이고, 외상 대금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신보 호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광주신용보증센터 보험가입 금액은 1조 22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392억원)보다 17.5% (182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가입 업체 수도 469개에서 573개로, 22.2%(104개) 늘어났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지난 3월 광주시 복구 한도매입체는 주요 거래처가 당장 부도가 났지만, 매출채권보험 보험금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이 업체의 계열회사도 같은 시기에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연쇄 부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